
내소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봉래루에서 더위를 식히며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봉래루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내소사, 출입 제한했던 봉래루 일반에 개방

부안 내소사의 전통 누각인 봉래루가 일반에 개방됐다. 내소사(주지 진성)는 “그동안 안전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왔던 봉래루를 일반에 전격 개방했다”고 밝혔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에 따르면 그동안 계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내소사를 찾는 탐방객들이 늘었으나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봉래루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봉래루에 차를 마실 수 있는 탁자와 다구를 배치하고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내소사는 봉래루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도강좌를 비롯한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인근 변산해수욕장과 격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겨 오는 내소사는 가족이나 연인, 등산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봉래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다도 강좌도 계획 중이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던 봉래루를 일반에 개방하고 내소사의 천혜의 자연과 함께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봉래루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은 물론 전법과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중이 불교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내소사를 찾은 한 관광객은 “그동안 여러 사찰을 찾았지만 마땅한 그늘이 없어 머물러가기 불편했다”며 “아이들이 더위에 많이 지쳐있었는데 봉래루에서 차를 마시며 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반에 개방된 내소사 봉래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로 조선 태종 12년(1414년) 건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한 가능성’ 佛法서 찾은 대학생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영 부디스트 캠프
전국 대학생 · 청년불자 120여 명 참여해
3박4일간 체험 · 강연 등
자신 돌아보는 시간 보내
청년들의 자신감 높이고
불교문화 접하며 신심다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영 부디스트 캠프에 참가한 청년불자들이 합장한 채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비로운 삶을 살 것을 서원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전국 청년 · 대학생 불자들이 고즈넉한 산사에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것을 서원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는 8월 3~6일 3박4일 일정으로 구례 화엄사와 지리산 일대에서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이란 주제로 ‘제8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다. 전국 대학생 · 청년불자 1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청년층 불자들의 단합과 교류 및 심신 증진을 위한 것으로 대불련 주요사업 중 하나다.

캠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등이 참여해 축하인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입재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당당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전국의 젊은 대학생 불자 여러분들이 고맙고 기특하다”면서 “여기 모인 대학생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바르게 구현해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경수 대불련 중앙회장은 “이번 영캠프의 슬로건을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 줄여 ‘소행성’이라고 정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행성 주변을 띠로 둘러 맴도는 소행성처럼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맴도는 행복과 성공들을 되돌아보고, 격려와 용기를 보냄으로써 참가 대중이 행복감과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한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블루썬리조트 송학홀에서 봉행된 입재식을 시작으로 3일에는 △법등별 시간 △법스타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4일에는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장재열 대표의 청춘강연 △공동체 놀이 △운동회(달려라 붓다) △도운 스님의 ‘19금 붓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5일에는 △지리산 천은사 순례 △노고단 산행 △계곡 물놀이 등 지리산의 자연을 만끽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6일에는 화엄사 순례와 회향식 등으로 영 캠프를 마무리했다. 이외에 △명상 △예불 △공양 등 사찰의 예절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보냈다.

특히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답게 일상의 익숙했던 습관을 벗어나 마음을 열고 캠프에 참가하는 것, 우리는 부처생명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확신 아래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것” 등을 다짐했다.

캠프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박준우 법우는 “둘째 날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는데 자연이 제게 말을 하는 것을 느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너무 서두르지마. 곁에 있는 자연 풍광을 놓치지마’라는 느낌이 들었다. 덕분에 이번 캠프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의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회향식에서 “화엄사의 ‘화엄’이란 뜻은 ‘행복’”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캠프의 주제처럼 우리 주위에는 소소한 행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 빠르게 변화하는 무한 경쟁의 삶에서 성공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곡당 윤명대선사 34주기 추모

고창 선운사, 스승의 수행 · 불사원력 되새겨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교구본사로 승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4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사진〉

8월 9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재곤 · 재석 · 재진 스님 등 상좌스님들과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前주지 법만 스님, 문수사 태효 스님, 내소사 진성 스님을 비롯한 문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남곡문도를 대표해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늘날 선운사의 발전된 모습에 초석을 놓으신 스승의 수행과 불사원력을 기리고, 가르침을 이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곡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34년 만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를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랍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명상으로 마음이 맑아졌어요!”

구례 화엄사, 경내서 초중생 ‘녹색등불 캠프’

청소년들의 열정을 다양한 놀이로 승화시킨 불교캠프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7월 28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내 화엄원서 ‘화엄사 청소년들의 열정을 만들어가는 녹색등불’ 캠프를 실시,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불교체험과 전통놀이, 마음상담 등을 진행했다.

구례 · 순천지역 초중등생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서는 마음그림상담연구소 ‘온새미로’ 대표 담소 스님의 지도 아래 4가지의 명상체험이 진행됐다. 28일 첫날 아이들은 풍경화 명상을 하면서 ‘지금 마음과 마음속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색채와 그림으로 표현했다. 저녁 예불 후에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가슴호흡을 통해 억눌린 상처를 발산하고, 내적 에너지를 평화로움으로 가득 채우는 동적 명상 시간을 보냈다. 밤늦도록 이어진 ‘소중한 나의 손’ 프로그램은 석고로 자신의 손을 본뜨는 것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을 떠올려 앞으로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조별 손 매듭 풀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녹색등불 캠프 참가 학생들.

둘째 날은 지리산 여름 숲속에서 자연물을 이용, ‘자연 만다라’ 재료를 구한 뒤 물놀이를 즐겼다. 아이들은 각자 산에서 구해온 자연물로 만다라를 만들고, 이야기를 붙여 조별로 발표했다.

이번 캠프를 진행한 담소 스님은 “명상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감정을 표출하면서 내재돼 있던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내적 에너지를 꺼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소중함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에서 온 한 중학생은 “사찰이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밥이 입에 안 맞을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괜찮았다. 밥도 맛있고 특히 피자와 샌드위치로 간식이 나와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캠프를 준비한 화엄사 포교국장 도운 스님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긍정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실 상이암 일대 자연 힐링공간으로

2021년까지 개발 예정

고려태조 왕건과 조선태조 이성계 관련 설화로 유명한 임실 상이암 일대가 자연 힐링공간으로 개발된다.

임실군 상이암 주변 성수산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총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이암 주변일대에 역사학습공간, 기 체험장, 친수공간 등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정비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려태조 왕건과 조선태조 이성계가 상이암에서 기도한 후 왕이 되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성수산을 왕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적 장소로 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왕의 숲 조성사업과 성수산 산림바이오힐링센터 등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